# 연구소 소식

## 2016년 제3차 육아정책심포지엄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7월 13일(수), 대회의실에서 제3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본 심포지엄은 신규 연구직원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발표 및 연구주제 분야를 모색하는 자리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진 대부분이 참석한 가운데 3인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재희 부연구위원은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방안 연구'를 주제로, 김지현 부연구위원은 '부모의 경제사회화(financial socialization)가 자녀의 경제 태도 및 행동(financial attitudes and behaviors)에 미치는 영향: 가족간 대화와 부모-자녀간 결속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조숙인 부연구위원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 상호의존성과 어머니의 정서 사회성 문화 비교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 2016 아태지역 장차관 육아정책포럼 참석

우남희 소장과 문무경 국제연구협력실장은 지난 7월 19일(화)부터 21일(목)까지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에서 열린 '2016 아태지역 장차관 육아정책포럼(2016 Asia Pacific Regional Policy Forum on ECCE)'에 참석하고 국외 대표단과의 교류를 가졌다. 본 포럼은 'The Transformative Power of Early Childhood: Innovations for Inclusivity and Quality'을 주제로, 유네스코 아태교육국, 유니세프 EAPRO & ROSA, ARNEC이 주최하고 말레이시아 교육부가 주관하였으며, 말레이시아 수상 내외인 Mohd Najib Tun Abdul Razak와 Rosmah Mansor, 아태지역 장차관 21명(장관 11명, 차관 10명) 및 38개국 대표단, 말레이시아 참석자 등 총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우남희 소장은 총체적 발달과 학습 성과를 위한 조정 기제의 혁신(Innovations in coordination mechanisms to promote holistic development and enhanced learning outcomes)을 주제로 한 세션의 전문가 토론 패널로 참여하였으며, 문무경 실장은 '유아교육과 보육에의 투자 증대를 위한 재정 및 파트너십 혁신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Innovations in financing and partnerships to increase investment in ECCE and improve the efficient use of resources)' 세션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였다.

## 2016년 제4차 육아정책심포지엄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9월 2일(금), 대회의실에서 '수요자 맞춤형 육아지원 강화'라는 주제로 2016년 제4차 육아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이윤진 연구위원이 '조부모 영아 손자녀 양육지원 정책의 필요성과 지원 방안 모색'을, 양미선 부연구위원이 '시간연장보육 운영현황과 과제'를 발표하였으며, 1부에는 한서대 한정란 교수와 성신여대 조윤주 교수가, 2부에는 남서울대 도미향 교수와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백선정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다양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 OECD 4th Extended ECEC 네트워크 회의 참석 및 TALIS Starting Strong Survey 프로젝트 참여

육아정책연구소 이미화 기획조정본부장과 최윤경 국제연구OECD팀장은 지난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OECD 본부(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ECEC 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하여 ECEC 주요 사업 진행과 성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재 OECD 교육지표사업의 일환으로 교수-학습 국제조사(TALIS: 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가 취학전 영유아기의 교육·보육 환경에 대한 국제연구로 연계, 확장되어 「TALIS Starting Strong Survey」 프로젝트(일명 「Staff Survey」)로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본 사업의 1주기 참여국으로, 육아정책연구소가 ECEC 분야 국제협력 국가조정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